

주요 내용

1. [기독교 청소년 신앙의식]

기독교 청소년 12%만이 부모와 신앙적 대화 자주 나뉨!

2.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한국 노인의 금융자산

2) 한국 노인의 연금소득 양극화 실태



기독교 청소년 12%만이 부모와 신앙적 대화 자주 나눴다!

종교인구의 하락, 교회에 대한 낮은 호감도와 불편한 사회적 시선은 개신교인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심각한 고령화/저출산 현상의 고민까지 더해져 교회는 다음세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기독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신앙생활을 조사한 결과에서 코로나 이후 청소년들의 신앙이 어른보다 더 취약해진 것을 확인했는데(넘버즈101호 참조), 팬데믹 종료 직후 조사한 기독교 청소년 신앙 의식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개신교 청소년 10명 중 4명(40%)은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장년층보다 더 높은 수치이다. 1명이라도 기독교인을 부모로 둔 비율은 86%로 가족 종교화 현상이 두드러졌는데 부모와 신앙적 대화를 자주 하는 비율은 12%에 불과했다.

이번 <넘버즈 214호>에서는 크리스천 청소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교회활동과 인식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교회의 다음세대 전략을 고민하고 수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24 크리스천 중고생 신앙 의식 조사

조사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교회 출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조사 방법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표본 규모	500명(유효표본)
표본 추출 방법	성별/학교급별/권역별 비례할당 추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기준)
표본 오차	±4.38% (95% 신뢰구간) (무작위 추출 가정)
조사 기간	2023년 5월 12일 ~ 5월 24일(13일간)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조사 주체	목회데이터연구소

01

[코로나 이후 교회학교 변화]

교회학교, 일반 학령인구 대비 감소 속도 2배 빨라!

- ▶ 초중고 학생의 인구 변화를 일반 초중고 학생과 교회학교 학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일반 학령인구의 경우 2013년 653만 명에서 2022년 527만 명으로 10년 전 대비 19% 감소한 반면, 교회학교 학생(예장 통합)은 2013년 34만 명에서 2022년 21만 명으로 10년 새 37% 줄어든 것으로 조사돼 일반 초중고 학생 감소율보다 2배가량 더 감소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 ▶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지난 10년간 일반 학령인구는 4%만 줄어든 것에 반해, 교회학교는 무려 36%가 줄어 교회학교 초등부에서 매우 큰 위기를 보이고 있다.

[표] 초중고 학생인구 변화*
(일반학생 vs 교회학교 학생, 만 명)

구분	2013	2022	증감률
일반 학령인구	653	527	-19%
교회학교인구 (예장통합)	34	21	-37%

*자료 출처: 일반 학령인구: 교육부, '2023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발표', 2023.08.30.
교회학교인구: 예장통합교단 교세통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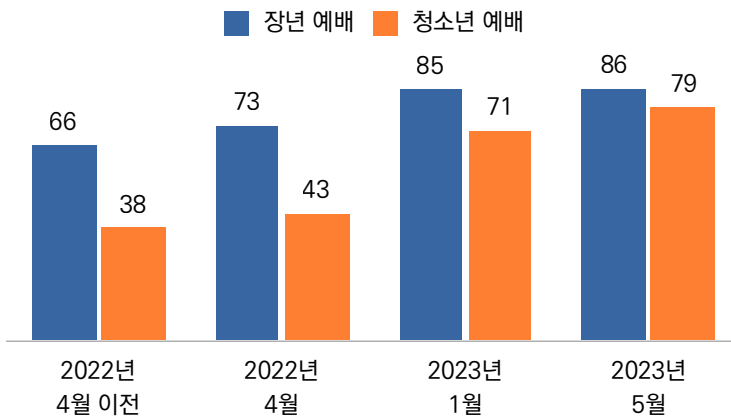
[표] 교회학교별(예장통합) 인구 변화 (일반 학령인구 비교, 만 명)

구분	구분	2013	2022	증감률
0~6세	일반 영유치아	326	220	-33%
	교회 영유치부	10	7	-42%
초등 학생	일반 초등생	278	266	-4%
	교회 초등부	18	11	-36%
중고등 학생	일반 중고생	370	261	-30%
	교회 중고등부	16	10	-38%

◎ 청소년 현장예배 회복도, 장년보다 더뎌!

- ▶ 코로나 이전 대비 주일 현장 예배 참석률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을 100%로 봤을 때 2023년 5월 기준 장년은 86%, 청소년 예배는 79%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조사돼 청소년 예배 회복도가 장년보다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 들어 '장년'의 현장예배 참석률은 큰 변동 없이 80% 중반을 유지했고, '청소년 예배'의 경우 올 1월보다 현장 예배 참석률이 8%p 소폭 상승했다.

[그림] 코로나19 이전 대비 주일 현장 예배 참석 정도 (담임목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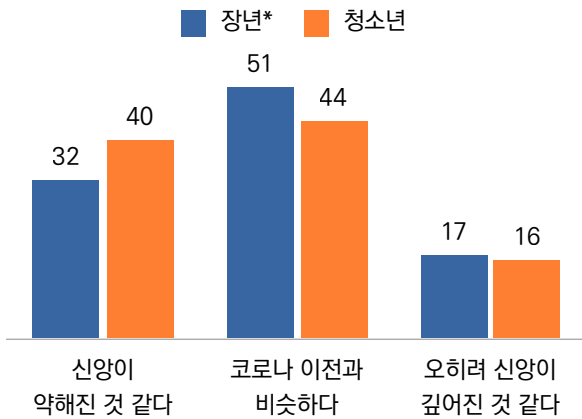
*자료 출처: 2022 자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기아대책/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코로나 추적조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소속 담임목사 981명, 모바일 조사, 2022.04.27.-04.30.)
2023.0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인의 종교의식과 신앙생활'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23.01.09.-01.16.)

02

[코로나 이후 신앙 의식 변화] '코로나 이후 신앙 약해졌다', 청소년이 장년보다 심해!

- ▶ 코로나로 인한 기독 청소년의 신앙 수준 변화를 살펴보면 '코로나 이전과 비슷하다' 44%,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 40%, '오히려 신앙이 깊어진 것 같다' 16%로 신앙 약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교회 출석 장년층보다도 신앙이 더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코로나19로 인한 기독 청소년 신앙 수준의 변화 (장년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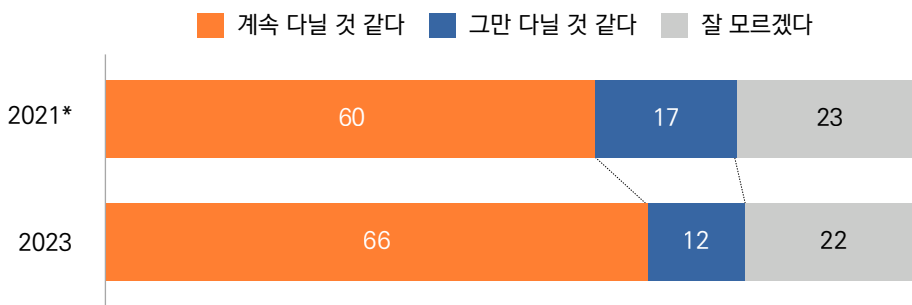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조사', 2023.06.10. (전국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 조사, 지앤컴리서치, 2023.05.12.-05.31.)

◎ 개신교 청소년 3명 중 1명, '성인이 되면 교회 안 다닐지도'!

- ▶ 교회 출석 청소년들에게 어른이 된 후에도 교회에 계속 다닐 것 같은지를 묻은 결과, 전체의 66%가 '계속 다닐 것 같다'고 응답해 2021년 조사보다 향후 교회 출석 예상률이 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그만 다닐 것 같다'는 의견은 2021년 17%에서 2023년 12%로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개신교 청소년 3명 중 1명(34%)은 성인이 되면 교회에 나갈지 여부가 불투명하다(그만 다닐 것 같다+ 잘 모르겠다)는 인식을 보여 이들의 불안정한 신앙 정체성을 알 수 있다.

[그림] 성인이 된 후 교회 출석 예상 (교회 출석 기독 청소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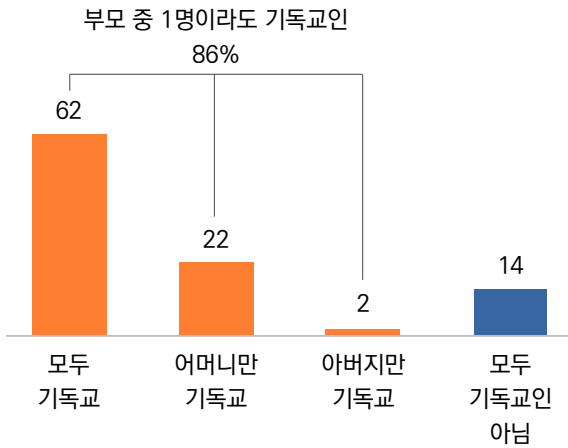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안산제일교회/한국교회연구원(예장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 '2021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생활에 관한 조사연구', 2021.06.17. (전국 교회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 온라인조사, 2021.04.08.-04.23.)

03

[가정 내 신앙생활] **기독교 청소년 중 부모 모두 비개신교인 14%에 불과!**

- ▶ 기독교 청소년의 부모 종교는 '부모 모두 기독교인' 62%, '어머니만 기독교' 22%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모 중 1명 이상이 기독교인 비율이 총 86%였다. 대부분의 기독교 청소년은 부모의 종교 영향으로 종교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 가족 종교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 ▶ 부모 모두 비개신교인인 경우는 14%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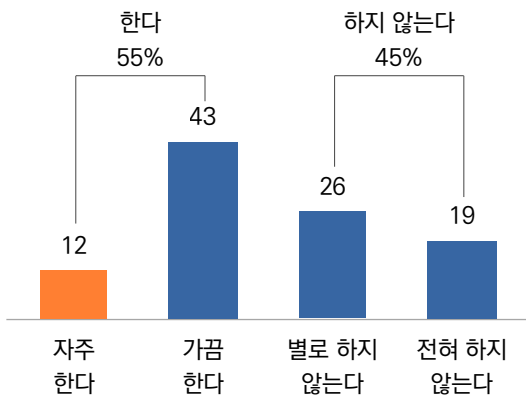
[그림] 부모님 종교 (기독교 청소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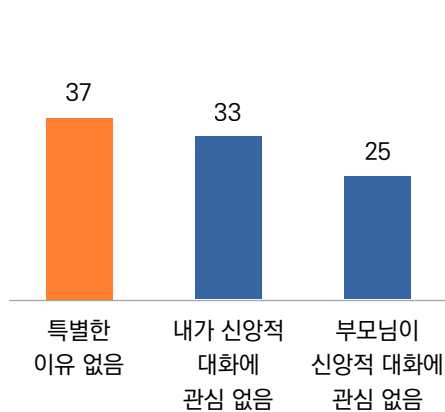
◎ 기독교 청소년 12%만이 부모와 신앙 대화 자주 나뉘!

- ▶ 그렇다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기독교 청소년들은 부모와 신앙적인 대화를 얼마나 하고 있을까? 55%가 '한다'고 응답했지만 '자주 한다'의 비율은 12%에 불과했다. 신앙의 특성이 삶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것임을 감안한다면 '자주한다' 응답자인 12%만이 실제로 부모와 신앙적 대화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 부모와 신앙적 대화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특별한 이유 없음'이 3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내가 신앙적 대화에 관심 없음'(33%), '부모님이 신앙적 대화에 관심 없음'(25%) 등의 순이었다. 부모와 신앙적 대화를 하지 않는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청소년 또는 부모가 신앙적 대화에 관심이 없는 셈이었다.

[그림] 부모와 신앙적 대화 여부 (기독교 청소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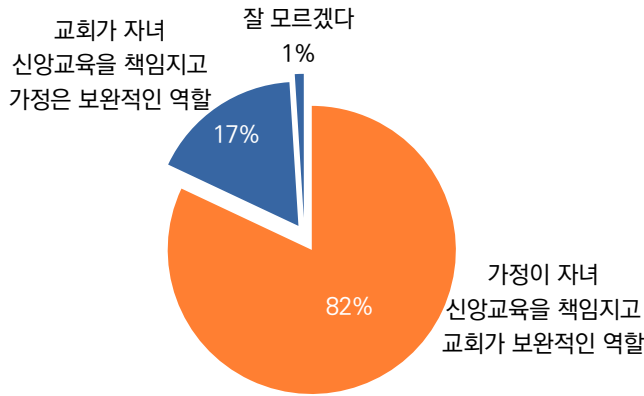
[그림] 부모와 신앙적 대화 하지 않는 이유 (기독교 청소년, 상위 3위, %)



◎ 목회자 대부분, ‘자녀 신앙교육의 중심은 가정이다’ 동의

- ▶ 이번에는 목회자(담임목사)를 대상으로 다음세대 교육 방향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 결과, 목회자 대부분(82%)은 ‘가정이 자녀 신앙교육을 책임지고 교회가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교회가 자녀 신앙교육을 책임지고 가정은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17%에 그쳤다.
- ▶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교회 목회자가 다음세대 교육이 교회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닌 가정에서 해결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목회 현장에서는 가정 중심 신앙 교육 방향으로 추진/실행하는 힘은 아직까지 미진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다음세대 교육 방향 (담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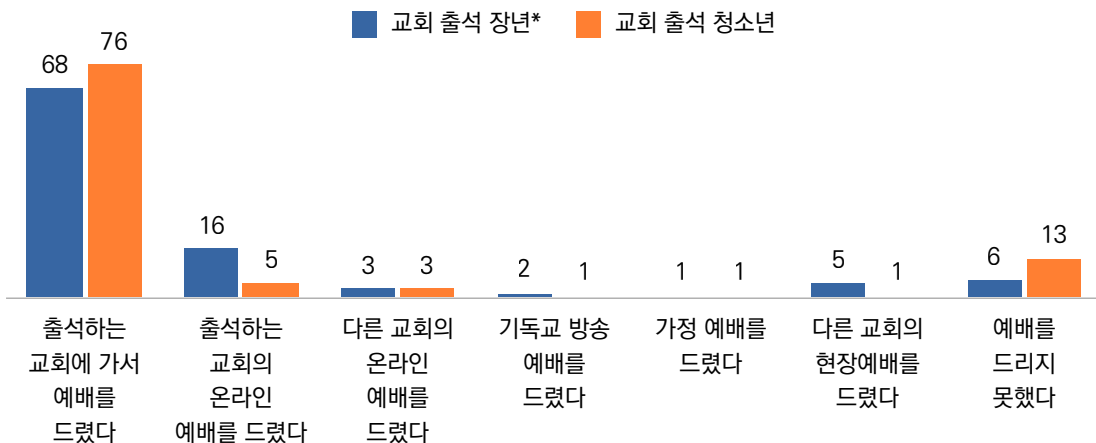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 트렌드 조사', 2023.06.10. (전국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23.05.12.~05.31.)

04

[교회와 예배 생활] 청소년 예배 형태, 장년 대비 현장 예배 강해!

- ▶ 청소년(교회 출석자)의 지난 주일 예배 형태는 ‘출석교회 현장 예배’가 76%로 가장 높았고, ‘출석교회 온라인 예배’ 5%, ‘다른 교회의 온라인 예배’ 3% 순으로 나타났다.
- ▶ 장년(교회 출석자)의 예배 형태와 비교해보면 현장예배 참석율은 더 높고, 온라인 예배는 더 낮은 경향을 보였다. 장년의 경우 예배의 선택지를 좀 더 넓게 보는 반면, 청소년의 경우 현장예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청소년 예배의 경우 온라인 예배가 없어서 현장 예배 비율이 상승한 측면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지난 주일 예배 형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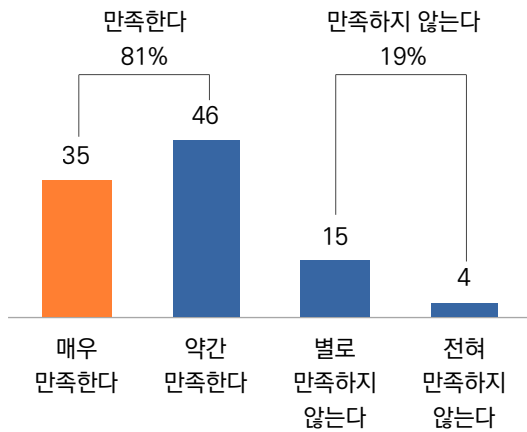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조사', 2023.06.10. (전국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 조사, 지앤컴리서치, 2023.05.12.~05.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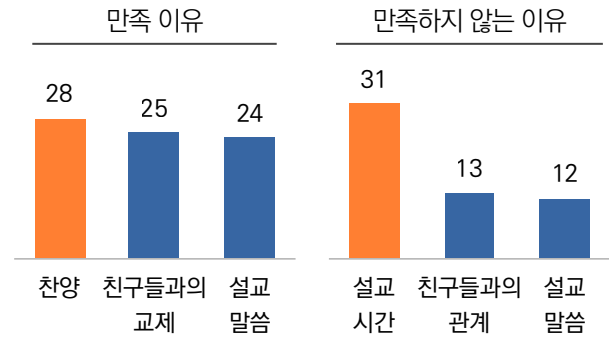
◎ 예배 만족 이유? ‘말씀’보다 ‘찬양’, 불만족 이유? ‘말씀’보다 ‘시간’!

- ▶ 청소년들의 예배 만족도(매우+약간 만족한다)는 81%로 매우 높은 편이었는데, 3명 중 1명이 ‘매우 만족’(35%)이라고 응답했다. 예배 만족 이유로는 말씀(24%)보다는 ‘찬양’(28%)이 높게 응답됐고, 예배 불만족 이유로는 ‘설교 시간’을 31%로 가장 높게 꼽았다.

[그림] 예배 만족도 (기독교 청소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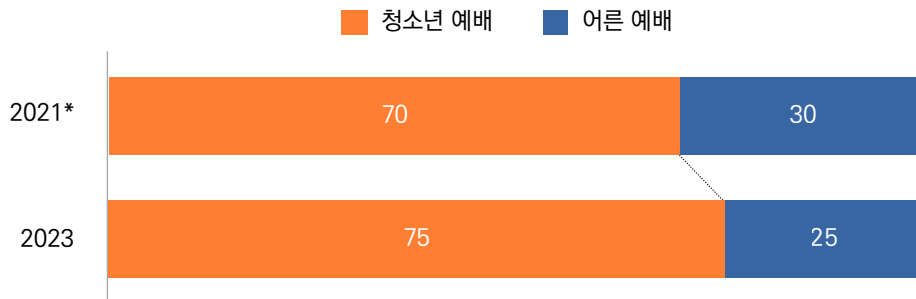
[그림] 예배 만족 이유 vs 예배 만족하지 않는 이유 (각각 예배 만족/불만족자, 상위 3위, %)



◎ 기독교 청소년 4명 중 1명, 청소년 예배 대신 어른 예배 드려

- ▶ 청소년 예배가 있는 교회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난 주일 청소년 예배를 드렸는지 혹은 어른 예배를 드렸는지를 물었더니 응답자 4명 중 3명(75%)은 ‘청소년 예배’를 드렸고, 나머지 4명 중 1명(25%)은 청소년 예배가 아닌 ‘어른 예배’를 드린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2021년 조사와 했을 때 ‘청소년 예배’를 드리는 비율은 5%p 가량(70%→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지난 주일 청소년 예배 여부 (청소년 예배 있으며 지난 주일 출석교회 예배한 청소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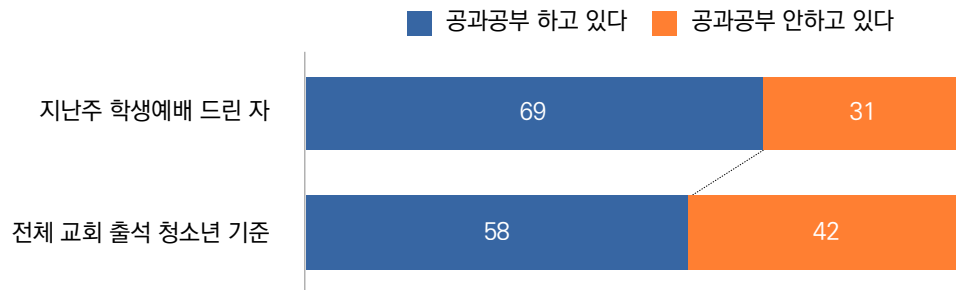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안산제일교회/한국교회연구원(예장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 '2021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생활에 관한 조사연구', 2021.06.17. (전국 교회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 온라인조사, 2021.04.08.~04.23.)

◎ 청소년 예배 참석자 중 31%는 공과공부 안 한다!

- ▶ 공과공부는 교회 공동체에서 성경공부뿐 아니라 친교/나눔을 포함하는 활동으로 신앙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전체 개신교 청소년 중 공과공부 하고 있는 비율은 10명 중 6명(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학생예배를 드리고 있는 학생의 공과공부 이탈률도 31%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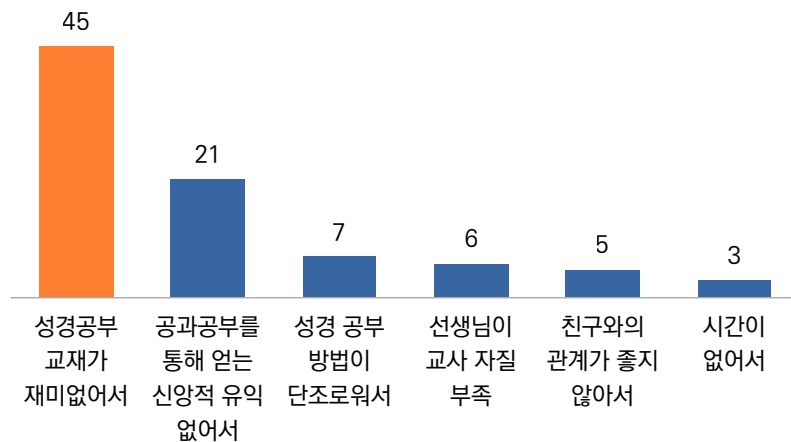
[그림] 공과공부 하고 있는 비율 (기독교 청소년, %)



◎ 공과공부 안 하는 이유? 절반 가까이 '교재가 재미없다'!

- ▶ 공과공부를 하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절반 가까이(45%)가 '성경공부 교재가 재미없어서'를 가장 높게 꼽았고, 다음으로 '공과공부를 통해 얻는 신앙적 유익이 없어서' 21%, '성경 공부 방법이 단조로워서' 7% 등의 순이었다. 말씀을 기초로 하되 청소년들의 흥미와 관심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과공부 교재의 마련/교구 활용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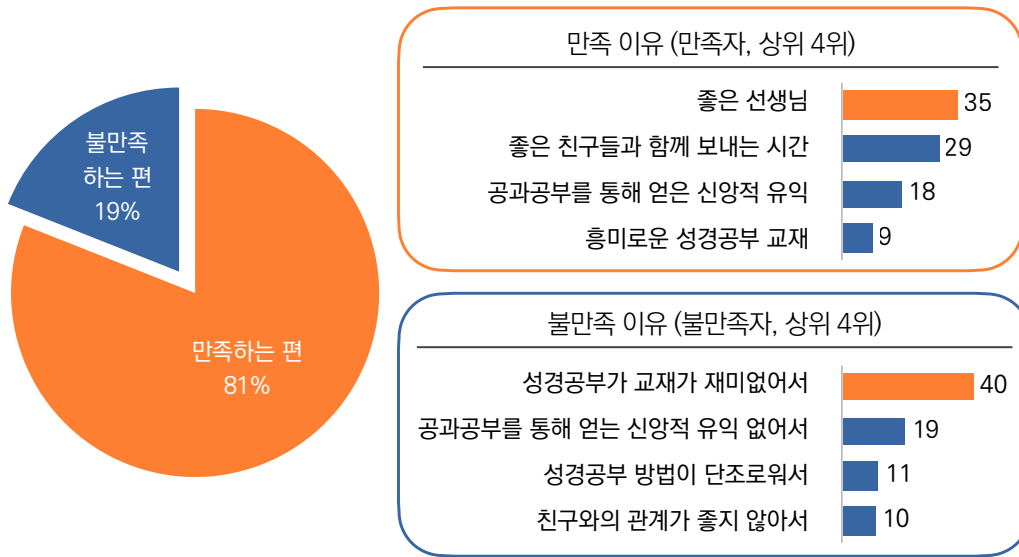
[그림] 공과공부 하지 않는 이유 (공과공부 안하고 있는 청소년, 상위 6위, %)



◎ 공과공부 만족 이유, 공부보다는 관계 영향 더 커

- ▶ 공과공부를 하는 청소년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일까? 만족(매우+약간) 81%, 불만족(매우+약간) 19%로 만족하는 비율이 불만족 대비 4배 이상 높았다.
- ▶ 그렇다면 공과공부에 만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좋은 선생님’이 3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좋은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29%, ‘공과공부를 통해 얻은 신앙적 유익’ 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과공부 자체를 통해 얻는 신앙적인 유익도 있지만 이보다는 좋은 선생님과 친구 관계가 더 높은 만족도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 ▶ 공과공부 불만족 이유는 공과공부를 안하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재미없음’이 주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림] 공과공부 만족도* (공과공부 하는 기독교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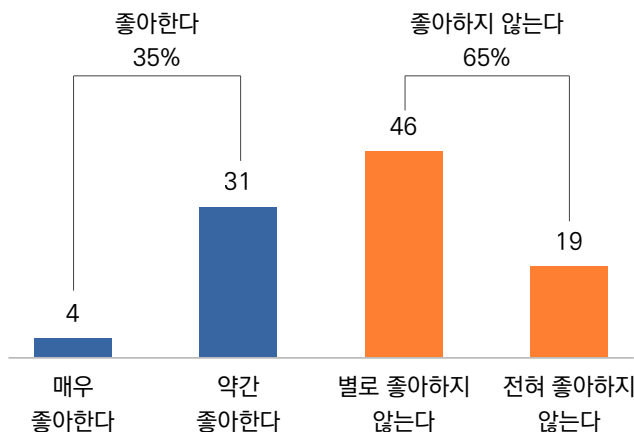


*4점 척도임

◎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성경공부, 청소년 3명 중 2명은 ‘부정적’!

- ▶ 성경공부나 제자훈련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에 대해 개신교 청소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좋아한다’가 35%, ‘좋아하지 않는다’ 65%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성경공부/제자훈련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2배 가까이 높았다.

[그림] 온라인 성경공부/제자훈련 선호도 (기독교 청소년, %)



시사점

보통 교회에서 정의하는 '다음 세대'는 '부모 세대의 신앙을 이어받을 교회학교 학생'을 일컫는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올해 발표한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에 따르면 목회자가 목회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다음 세대 교육 문제'(23%)를 꼽았고, 넘버즈 200호 특집으로 진행한 구독자 설문에서도 기독교 주제 중 가장 관심 있는 것으로 '다음 세대'(67%, 중복응답)가 가장 많이 선정됐다.

이처럼 한국교회의 과제이자 주요 관심 대상인 '다음 세대'는 현재 여러 조사 결과에서 위험한 징후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다음 세대'의 신앙이 약해지고 있다.

코로나 엔데믹을 선언한 직후인 올해 5월 실시한 이번 기독교 청소년 조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신앙 수준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 청소년 40%가 '신앙이 약해졌다'고 응답했다. 이는 장년 응답(32%)보다 높은 수치이다. 또한 개신교 청소년은 모태신앙 비율이 60%, 부모 중 1명 이상 기독교인 비율이 86%일 정도로 절대적인 부모 신앙에 영향 아래 있었는데 부모와 '자주 신앙적 대화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2%에 불과했다. 게다가 '부모와 신앙적 대화를 하지 않는 이유'로 '특별한 이유 없음' 또는 '관심 없음'이 주로 응답되어 영적 무감각한 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실제 '다음 세대'의 교회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

교회학교 인구는 동일 연령대의 인구 감소율보다 더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일반 초중고 학생인구의 감소율은 19%인데, 교회학교 인구 감소율은 37%로 2배나 더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기독교 청소년에게 성인이 된 후 교회 출석 여부를 물어보니 34%의 학생이 계속 다닐 것이라고 단정하지 못했다(그만 다닐 것, 모르겠음). 교회학교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데, 이마저도 이들이 성인이 되면 1/3가량이 더 이탈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기 위해 무엇을 염두에 두고 고민해야 할까?

첫째로 다음 세대의 관심과 흥미(Interest)를 알아야 한다.

기독교 청소년들이 교회 예배에 만족하는 이유를 보면, '찬양', '친구들과의 교제', '설교 말씀'이 24~28% 사이에서 비슷한 비율로 응답했다. 예배에 대한 관심이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과공부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로 '성경공부 교재가 재미없어서'라는 응답이 45%로 다른 이유보다 최소 2배 이상 높았다. '성경공부 교재가 재미없어서'의 '재미'란 무엇일까? 청소년기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면 여기서 '재미'란 단순한 즐거움(fun)이 아니라 관심과 흥미(Interest)에 더 가깝다. 청소년들이 그 나이에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느낄만한 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공부 교재가 그러하듯 교회의 청소년부 예배나 프로그램을 보면 과거에 하던 것을 답습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은 달라지는데 교회는 안일한 태도를 고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원하는지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교회에서 자신의 고민과 관심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환경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는 공동체 안에서 관계(Relationship)를 형성해 줘야 한다. 장년 세대와 비교했을 때 청소년들의 현장 예배 비율이 더 높고 온라인 예배 비율이 낮았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청소년들은 인생의 어떤 시기보다 '관계성'을 중요시한다. 청소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예배도 있지만 친구들과의 만남도 있다. 온라인 예배는 두 번째 이유를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청소년들이 장년보다 현장예배를 더 많이 드린다고 할 수 있다. '공과공부'도 '좋은 선생님(35%)'과 '좋은 친구들(29%)'이 있을 때 만족도가 높아졌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다른 구성원들, 특히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경험의 폭과 깊이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의 방식을 조정하고, 관계 형성을 도울 수 있는 부가적인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한다면 신앙적 성숙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예장통합 교회학교 인구변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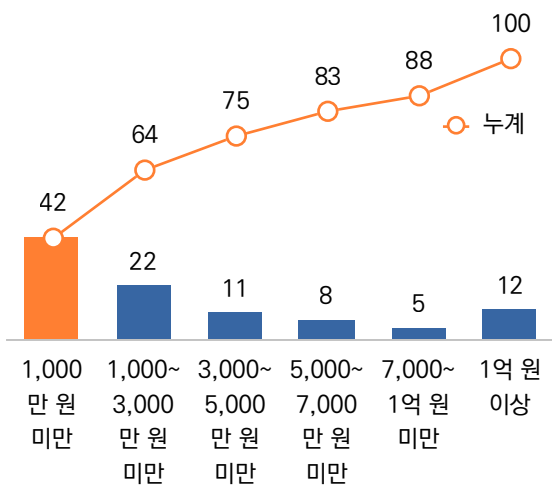
- 1.[한국 노인의 금융자산]
- 2.[한국 노인의 연금소득 양극화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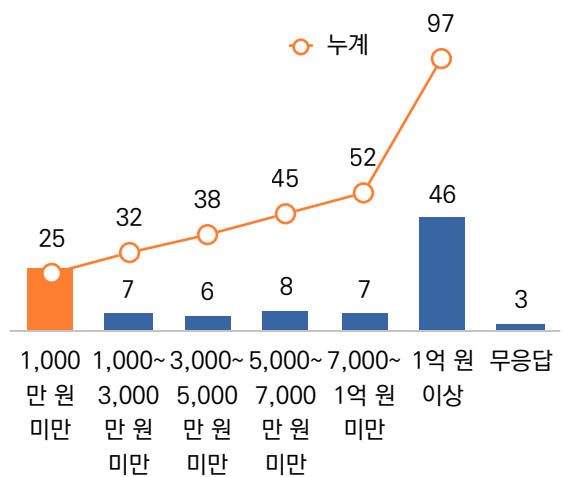
한국 70대 고령 가구 64%, 통장에 3,000만 원 미만

- ▶ 가계자산은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으로 나눌 수 있다. 금융자산은 현금, 예금, 보험 및 연금, 채권, 증권 등 현금화가 용이한 자산을 말하며 비금융자산은 토지, 건물, 제품 등 실물자산을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70대 고령 가구의 금융자산 현황은 얼마나 될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한 최근 조선일보/NH투자증권 100세연구소의 분석 자료를 보면, '1,000만 원 미만'이 4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000만~3,000만 원'이 22%로 나타나 '3,000만 원 미만'이 70대 고령 가구 3가구 중 2가구(64%)였다.
- ▶ 엔화 환율을 100엔=1,000원이라고 가정하고** 일본의 고령 가구 금융자산과 동일한 구간의 비율을 비교 하면 일본의 경우 3,000만 원 미만이 32%로, 한국의 절반 수준이었으며 1억 원이상 금융자산 보유가구 비율이 46%로 가장 많아 한국과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림] 한국 고령 가구 금융자산 분포* (70대, %)



[그림] 일본 고령 가구 금융자산 분포* (70대, 100엔=1,000원 가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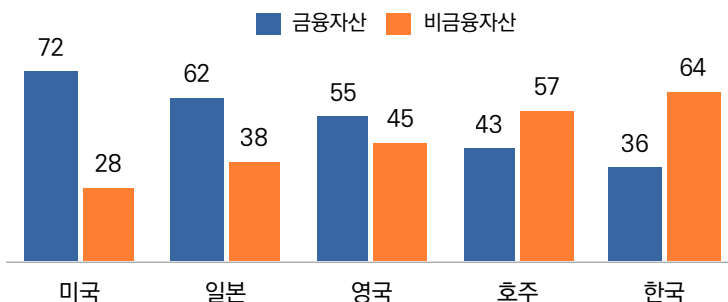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조선일보, "노후자금 1억 넘게 모았다" 일본 70대는 46%... 한국의 70대는? 기사 참조, 2023.10.28. (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3/10/28/TTKACU7PHFA23CVDQF4SN7R4W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실제 환율 100엔=870원 (2023.11.06. 기준)

◎ 한국의 비금융자산 비중, 세계 주요국에 비해 크게 높아

- ▶ 한국 가계자산의 구성은 어떠한가? 다른 나라와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자산은 부동산 등의 비금융자산이 64%로 금융자산(36%)보다 훨씬 많았다.
- ▶ 주요 5개국의 가계자산 구성을 비교해 보니 미국, 일본, 영국은 금융자산 비중이 가계자산의 50% 이상으로 나타나 비금융자산에 집중된 한국과는 대조적이었다.

[그림] 세계 주요국의 가계자산 구성 (2021년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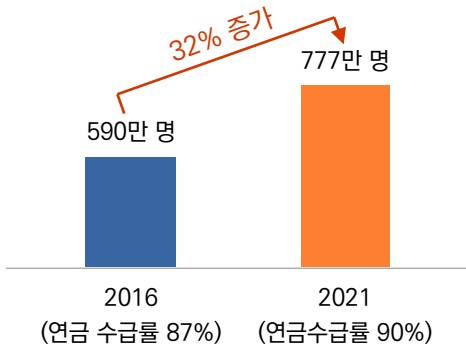
*출처 : 한국금융투자협회, 2022 주요국 가계 금융자산 비교, 2022.08.23.



한국 노인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 60만 원

- ▶ 우리나라 고령자들의 노후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연금이 가장 높다.*** 최근 통계청에서 연금 통계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개인연금 수급자를 중심으로 한 연금 수급 현황, 노후 연금 소득의 양극화 실태를 살펴보았다.
- ▶ 65세 이상 노인 연금 수급자는 2016년 590만 명에서 2021년 777만 명으로 32%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월평균 수급액은 60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노후 생활비 124만 원의 절반 정도 수준이다.

[그림] 연금 수급자 추이 (65세 이상)



[그림] 연금 수급액 수준 (2021, 65세 이상, 월 기준)



*자료 출처 : 통계청, '2016-2021년 연금통계 개발 결과' 보도자료, 2023.10.26.

**필요 최소 노후생활비는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추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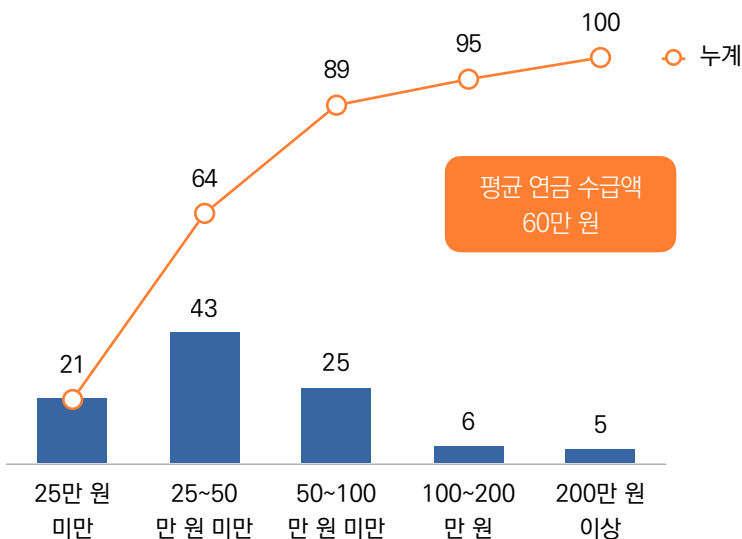
***〈남버즈 181호〉 참조

Note) 연금 종류 : 기초, 장애인, 국민, 지역, 퇴직, 개인, 주택, 농지 연금

◎ 65세 이상 노인 연금 수급자, 3명 중 2명은 월 50만 원도 못 받아

- ▶ 65세 이상 노인들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 분포를 살펴본 결과, '25~50만 원'을 받는 수급자가 43%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100만 원 미만' 25%, '25만 원 미만' 21% 순이었다. 전체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 3명 중 2명(64%)은 '월 50만 원 미만'이라 응답해 앞서 언급한 '월평균 수급액' 60만 원에도 못 미쳤다.

[그림] 개인 월평균 연금 수급액 분포 (65세 이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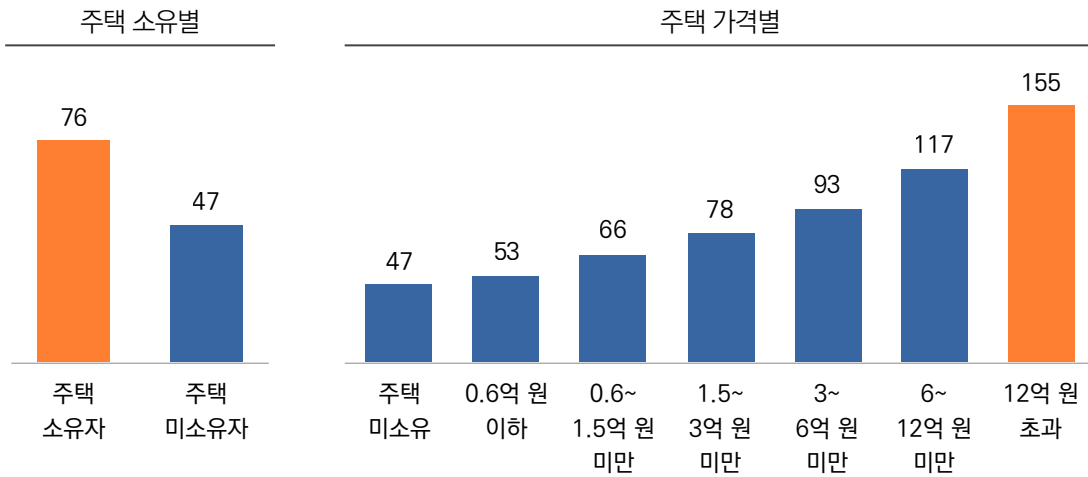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2016-2021년 연금통계 개발 결과' 보도자료, 2023.10.26.

◎ 유주택/고가 주택 소유주, 무주택자 대비 최대 3배 이상 연금 수급액 많아!

- ▶ 유주택자와 무주택자들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주택 소유자의 경우 평균 76만 원을, 주택 미소유자는 평균 47만 원을 받아 유주택자의 연금 소득이 1.6배 더 많았다.
- ▶ 주택 가격별로 연금 수급액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12억 초과' 주택 소유자는 월 155만 원을 수령해 무주택자(47만 원) 대비 3배 이상 연금 수급 격차를 보였다. 노후 연금 소득에서도 양극화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이다.

[그림] 월평균 연금 수급액 비교 (2021, 65세 이상, 만 원)



*자료 출처 : 통계청, '2016~2021년 연금통계 개발 결과' 보도자료, 2023.10.26.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63호 \(2023년 11월 1주\)](#)

- 정당별 호감도, 7개 분야별 정책 평가 등

◎ 사회 일반

[먹거리 물가, 10년만에 '3년 연속 5%대'...저소득층 식비 '직격'](#)

연합뉴스_2023.11.05.

["부모와 대화 많이 나눌수록 자녀 의학·교육계 진학 가능성 ↑"](#)

연합뉴스_2023.11.05.

[5대 은행 모두 1인당 평균 연봉 1억원 넘었다...하나은행 1위](#)

연합뉴스_2023.11.01.

[작년 노인진료비 45조8천억원, 전년보다 11% ↑ ...의사는 2% 증가](#)

연합뉴스_2023.11.03.

["향후 10년간 25~59세 일하는 인구, 부산시 인구만큼 줄어들 것"](#)

문화일보_2023.11.01.

["올해 김장 하세요?" 물었더니...지난해보다 1.8%p 감소](#)

KBS뉴스_2023.11.02.

[사교육3구는 강남·서초·마포... 염리동 임대료 '고공행진'](#)

조선비즈_2023.11.05.

["사회가 사회적약자 차별해" 68%](#)

데이터숨_2023.10.31.

[미신 1위 '임신했을 땐 상갓집 안 감'](#)

데이터숨_2023.10.31.

["국민 47%, 원전·신재생에너지 균형 있는 확대 찬성"](#)

연합뉴스_2023.11.06.

["국민 10명 중 8명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설정 자율화 원해"](#)

연합뉴스_2023.11.05.

[교실 절반이 '김빅○○아'...56곳 초등생 10%가 다문화](#)

중앙일보_2023.11.07.

◎ 기업 / 경제

["중장년 69세까지 일하기 원하지만 퇴직연령은 50.5세"](#)

조선비즈_2023.11.02.

["내년 한국 경제 2.1% 성장 전망...고금리 하방 위험 유의"](#)

연합뉴스_2023.11.06.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5060 부머쇼퍼, 이젠 음원·OTT시장도 접수](#)

중앙일보_2023.11.02.

[재택근무 줄어든다...“시행 기업 62% 일부 직원에 한해서만”](#)

한겨레_2023.11.05.

[매출 20조원... 세계 10위권 ‘메가 항공사’ 내년 뜬다](#)

조선일보_2023.11.03.

[직장생활에서의 세대별 이미지 및 사회성 평가 관련 조사](#)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_2023.11.03.

◎ 국제

[무자녀 부부 ‘딩크족’... 재산 빨리 불리지만, 노후 빈곤율은 유자녀보다 높다](#)

조선일보_2023.11.05.

◎ 건강

["찾은 지각도 '성인 ADHD' 주요 증상...20대 유병률 7.7% 최고"](#)

연합뉴스_2023.10.31.

[하루종일 앉아있어도 ‘이것’만 하면 건강 챙길 수 있다](#)

동아일보_2023.11.03.

◎ 기독교 / 종교

[‘시대 트렌드’ 읽고 교회 미래를 밝히자](#)

더미션(국민일보)_2023.11.04.

[“저출산, 돈만으로 해결 안 된다...영똥한 정책에 세금 낭비 말아야”](#)

시사저널_2023.11.03.

[코로나 거치며 청년부 숫자 오히려 늘 교회, 비결은?](#)

기독일보_2023.11.05.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경동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덕신제일교회, 대구칠곡교회, 대덕교회, 대전선창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명성제일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빛과소금교회, 브니엘감리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산성교회, 삼덕교회, 삼천포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동성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종로),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울홍성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내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새중앙교회, 세광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예은교회, 예하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올리브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광장로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잠실교회, 장유대성교회, 정음성광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사랑교회(파주), 주안장로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 할렐루야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 (가나다 순)

| 후원 기관 |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A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사)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한목회, 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광주지식포럼, CCC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 후원 기업 |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주)마뜨, 메가리서치,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웨슬리퀘스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가나다 순)

| 후원 명단 안내 |

후원자 명단(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송예슬, 한미경

| MOU 기관 |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안미션,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일연합선교회

미주지역 :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책 구입 안내 |

정확한 조사 데이터에 기반하여 한국 교회 전망과 전략을 담은 '한국교회 트렌드 2024'가 출간되었습니다.

2022년 말부터 신학교 교수, 언론인, 현직 대형교회 및 소형교회 목회자, 기독교 문화 전문가, 조사 통계 전문가 등 한국교회를 다차원적으로 볼 수 있는 전문가로 TFT를 구성, 기획하고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조사와 집필을 주관하여 작년 [한국 교회 트렌드 2023]에 이은 두 번째 책입니다.



서적 소개 동영상

책 구입 안내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